



Kyo.Prot.N. 23/2021

교토 교구의 신자분들께

2021년 부활 주교 메시지

「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. 알렐루야!」

주님 부활의 아침, 기쁨의 고함 소리가 예수님의 무덤에서부터 온 세상에 울려 퍼집니다. 교토 교구의 신자 여러분,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. 또한 부활절에 세례의 은총을 받으신 새 신자 여러분, 세례를 축하드립니다. 교토 교구의 일원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.

작년 성주간에는 팬데믹이 시작되어 교회에서는 거룩한 전례도 거행하지 못하였고, 진심으로 부활의 축하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. 하지만 일년 동안 긴급사태가 반복되는 가운데, 가능한 범위에서 미사를 거행하며 조금이나마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. 교토 교구 신자 여러분, 교회의 방침에 따라 정말 잘 견디고, 협력해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

그래서 저는 올해 부활절은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주님이신 하느님 아버지와 고통 받는 사람들의 곁에서 위로와 치유를 베푸시는 부활의 주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자 합니다.

교황 프란치스코는 「성 요셉의 해」를 선포하고, 세계와 교회가 곤란한 상황에서 교회의 보호자 성 요셉에 대한 사랑을 돈독히 하고, 그 전구를 빌며, 그 덕을 따르기를 당부하고 계십니다. 코로나 상황에서도 성 요셉처럼 매일 인내하고, 가족과 직업을 위해 일하는 사람, 눈에 띄지는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(에센셜 워크)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인의 전구를 청합시다.

불행히도 코로나 상황의 수습은 보이지 않고, 감염이 다시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. 교토 교구의 신자 여러분, 조금 더 감염 방지 대책에 노력을 아끼지 말고, 이웃을 위한 사랑의 행위로 모든 희생을 바칩시다. 미사를 다시 중지하게 되더라도 『모든 생명을 지키기 위해』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인내와 희망, 건강과 안전의 은총을 청합시다. 알렐루야! 알렐루야!

2021年4月3日 부활성야제

가톨릭 교토 교구 주교

✠바로로 오오츠카 요시나오